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88

佛教新聞

bulgyo.com

기사 2557년 7월 3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5월25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25호 수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임교원 불자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신규 3대 총림 방장 추대

〈동화·쌍계·범어사〉

종단 8대 총림 시대 열어

194회 중앙종회, 진제·고산·지유스님 만장일치 추대

불교종회 동화사 방장에 진제 종정예하,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에 고산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에 지유스님이 지난 6월20일 개최된 194회 중앙종회 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수행이 가장을 잇는 전국 8대 총림 체제를 갖추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총림(叢林)이란 선원과 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 또는 율학승가대학원, 염불원을 두루 갖추고 있는 종합수행도량으로, 교육기관과 수행기관이 결합돼 있는 게 특징이다. 중국 선불교에서 시작된 총림은 하는 우리나라에서 수행과 교육중심도량으로 꽃을 피웠다. 고려 중기에는 선찰(禪刹)을 표방하는 총림이 등장했으며, 임제종(臨濟宗)에 한국불교의 선통과 수행전통을 융합하기 위해 총림을 강구했다. 8·15 해방직후 수좌들이 중심이 돼 비구 스님들이 머물러 수행하는 보광총림 개설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19회 년 10월 해인사에 한국불교 최초로 가야총림이 설립됐다. 선과 교를 아울러 모든 납자들이 모여 수행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선사(修禪社), 임제종(臨濟宗) 한국불교 선통과 전통과 수행전통을 융합하기 위해 총림을 강구했다. 이후 가야총림은 불장사를 걸쳐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나게 종합수도장의 면모를 갖췄다. 뒤를 이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조계총림 송광사와 강원 울산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축총림 통도사, 충남권과 중심수행도량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에 총림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지정된 총림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사찰 동화사와 경남 동부권 중심 사찰인 쌍계사,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선찰 범어사 세 곳이다. 이에 따른 조계종은 명실공히 전국적 규모의 총림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동화사는 급당선원과 양장암, 내원암 선원과 승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불학승가대학원을 개원했다. 또 쌍계사는 선원과 승가대학에 이어 지난 4월 국사암에 쌍계불학승가대학원을 개원하여 총림의 사격을 갖췄다. 내년 초 범패전수관을 완공하고 수행기관인 염불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범어사도 지난 3월 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동산불학승가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아 금어선원과 승가대학 등 종합수행도량을 갖췄다.

안혁수 기자 anne-ik@bulgyo.com

전국 총림 현황

- 해인총림 해인사
- 조계총림 송광사
- 영축총림 통도사
- 덕숭총림 수덕사
- 고불총림 백양사
- 팔공총림 동화사 (新)
- 쌍계총림 쌍계사 (新)
- 금정총림 범어사 (新)

종단, 젊고 유능한 출가자 전폭 지원

'청소년출가 단기출가 특별법' 제정

출가자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출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194회 중앙종회 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10대나 20대 출가자는 은사 스님이나 종단으로부터 장학 및 생활지원을 받게 되며, 종립대학 진학이나 군법사 지원 사례는 우선 선발되는 혜택도 누린다.

소년출가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출가하면 은사 스님으로부터 5계를 받고, 조계종 총무부에 소년출가로 등록한다. 소년출가자의 은사 스님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지원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소년출가자들은 종단의 예비승으로 출가사찰에 상주하며 사찰이 종단이 정한 소년출가자 복장을 해야 한다. 출가사찰에 상주하면서 기초적인 불교교리와 염불을 익히고 청소년법회나 수련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 다만 주지스님 재량으로 출가사찰 외에 학교기숙사 또는 별도 거주처에서 생활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사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열자 교육과정과 5급 승가고시가 면제되며 사미·사미니계단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을 수 있다. 군법사 지원 시 우선 선발된다. 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등 종립대학에 진학 시에는 우선선발과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종단이 지원한다.

청년출가는 고등학교 졸업과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법사 지원시 우선 선발되며 종립대학 진학 시에는 등록금 및 수업료를 종단이 전액 지원한다.

단기출가자는 30일, 60일, 90일과 1년부터 10년 등으로 구분된다. 단기출가자 역시 은사를 정해 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해야 하며, 총무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단기출가자가 정식출가를 희망하는 경우 출가기간이 1년이 넘으면 6개월간의 행자기간 없이 곧바로 종단 교육과 승가고시에 합격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지할 수 있다.

어현경 기자 eonaki@bulgyo.com

이명박 정부 불교 대상 공작?

종회 특위 구성 …종교편향도 규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가 194회 임시종회서 '이명박정부 불교탄압 공작 진상규명 및 종교편향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지난 6월20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이 안건은 한 언론에서 "MB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정국 이후 범불교대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와 불편한 관계로 치닫았던 불교계를 탄압하기 위해 비밀공작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적을 제기했다.

대표발의한 제정스님은 최근 발생한 인권공장 전통등 성폭, 대해경조과학부 선교, 서울시교육청 관련 문제, 보 국회의원의 기독교인 인사청탁하나 도표명 개정 등을 예로 들고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보기관도 종교편향은 이어지고 있다"며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회부의장 법안스님도 "단순한 종교편향이 아니라 종단의 자주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대월리고발누스'에서는 지난 6월20일 이명박정부가 불교탄압을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방안' 입안을 위한 기초 문건으로 '조계종 원부 화파한 분' 을 작성, '불교정화운동' 를 위해 조계종 성지에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자료스님과 김희중 기획위 대주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상봉 민족종교협의회장, 원각연 변화리 세계종교평화의 사무총장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7대 종교의 화합을 기원하는 일심 세합의 공을 쉬는 봐보면스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심 세합이 깊은 상이기는 하지만 함께 쉬는 않는다"며 "서로 주자가 다른 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함 때 요 는 불다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박 타트리거, 한마음 조리 쌀기, 단체 줄다리기, 화합의 풍선탑 쌓기 등을 퍼면서 종교 간의 벽을 허물었다. 한편 종교인권위원회는 이웃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이웃종교스쿨이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종교평도 2만9일간 진행하며 불교는 원해정 사단 부사서 에 법륜스님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시영 총정자사장 lsy@bulgyo.com

지난 6월2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교인화합대회' 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7대종단 수장들과 나빈들이 석석의 공을 쉬신 채로 즐기고 있다. ar50mt@bulgyo.com

"달라서 아름답다" 2013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전국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속경기와 대동놀이 등을 통해 이웃 종교인들에 대한 이해와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 6월27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013 이웃종교 화합주간 전국종교인화합대회'를 개최했다. '다른도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희중 기획위 대주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상봉 민족종교협의회장, 원각연 변화리 세계종교평화의 사무총장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7대 종교의 화합을 기원하는 일심 세합의 공을 쉬는 봐보면스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심 세합이 깊은 상이기는 하지만 함께 쉬는 않는다"며 "서로 주자가 다른 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함 때 요 는 불다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박 타트리거, 한마음 조리 쌀기, 단체 줄다리기, 화합의 풍선탑 쌓기 등을 퍼면서 종교 간의 벽을 허물었다. 한편 종교인권위원회는 이웃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이웃종교스쿨이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종교평도 2만9일간 진행하며 불교는 원해정 사단 부사서 에 법륜스님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시영 총정자사장 lsy@bulgyo.com

지면안내

5사단 전방대서 통일기원법회 봉행 4면
부산 지장지사장 막말 5면
'선도 여행단서 '법해불'선사장' 13면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특별인터뷰 13면

아름다운동행 & 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아프리카로 건립 캠페인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방 한칸]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평)] 50,000,000원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반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